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청년농 소통간담회 개최

✎ 이루세 기자 | ☎ 승인 2025.02.26 14:50

현장 의견수렴 및 농산업 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김태호, 이하 지사)가 지난 20일 지사에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농업인의 현실적인 고충을 듣고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지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지난해 농가에 3.1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호 지사장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5년 선임대후매도사업’의 1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확인하거나 농지은행상담센터(☎ 1577-77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루세 기자 gimpo1234@naver.com